



일본 성마리아 병원 연수기(2차)

김 기 유

(성빈센트병원 임상병리과)



가톨릭병원 협회에서 국제교류협력의 일환으로 해마다 일어회화시험을 거쳐 몇 명씩 파견하는 일본 후쿠오카 구루메시에 소재한 성마리아병원에 2002년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다녀왔다.

일본후쿠오카의 구루메시의 성마리아 병원은 49년의 긴 역사를 가진 1400병상의 병원으로 환자와 가족을 생각하는 진료, 24시간 365일 항상 열려있는 응급외래진료 시스템이 있어 모든 것이 환자중심으로 열려있는 종합병원으로서 신생아 센타와 야간구급센타, 노인 복지센타로서 유명한 병원이었다. 깨끗하고 아담한 후쿠오카공항, 입국장에서 간단한 입국신고절차를 받으면서 무척 친절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자기 맡은 일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통해 '와! 이제 내가 일본에 와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날 낮설기만 한 이국땅에서 짧은 일어 실력으로 행정파트와 간호부서등이 함께 하는 연락 회의라는 조회에 참석해서 연수에 함께 한 팀원을 대표하여 일어로 인사말을 할 때 조용하게 나를 주시하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니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며 더욱 더 긴장됨을 느꼈다.

무사히 인사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설때에는 어떻게 2주를 버틸까싶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벌써 돌아와 이 글을 쓰고 있으니 마치 긴 잠에서 깨어 잠들기 전의 일을 방금 전의 일로 착각하듯이 일본연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간데 없고 꿈을 꾸 것만 같은 기분이다.

병원 연락회의에서 첫인사를 끝낸 후 오전에 병원개요설명을 병원장대리에게 들고 간단한 질문을 마친 후 각 팀원이 연수받을 각과에 가서 부서장님과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오후에는 구루메시내 견학을 갔는데, 무척 인상적인 것은 도로에는 휴지하나 없고, 개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이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있었는데 그것은 개가 실례를 했을 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참으로 자기 자신의 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기본적인 성향에 부럽기만 했다.

구루메시 정상을 볼 수 있는 산위로 올라가

면서 도로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나무와 꽃들을 보며 그동안 가졌던 긴장이 풀림을 느꼈다.

산속에 울창하게 보존되어 있는 고목을 보면서 놀랐고 아담하고 이쁘기만한 그들의 전통가옥은 담이 어린 아이키만큼 낮았고, 항상 열려있는 것 같은 대문은 높은 담과 철망을 씌워 남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같은 우리네 집과 비교해볼 때 무척이나 신선하고 가슴이 열리는 기분을 주었다.

다음날부터 시작된 자기전공분야에 대한 연수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Multiskill system의 소개를 받으며 내가 임하고 있는 미생물부에서의 일들을 차근차근 배우면서 파트섹션책임자를 빼놓고는 검사실의 모든 일을 돌아가면서 하는 탄력적인 근무 형태를 보며 그들의 철저한 직업의식에 주눅이 들 정도였다. 물어보지 않으면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였고 내가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그것을 해결해주려고 하였다. 또,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서 한자로 써주기도 하고 영어사전에 단어를 찾아주고 그것으로도 알아듣지 못하면 직접 뛰어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다른 분을 모셔오고 하면서 내가 이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설명해주었다.

나에게 설명하다가 자신의 일을 다하지 못해 점심을 늦게 먹으면서까지 점심시간에도 남은 일을 하는 그들의 근면함과 부지런함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나의 이러한 마음을 읽고 가까이 와서는 뭐 궁금한 것이 없냐며 검사실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며 자세히 설명해주던 이또상의 상냥함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일주일이 끝날즈음에 돌아본 나가사카의 관광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원폭기념관에서 본 일본의 원폭피해상은 정말로 눈물이 핑 돌정도였다.

원자탄이 떨어진 여학교의 교정에 있었다는 도시락에 밥알이 씨꺼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가슴에 울적 올라오는 무엇을 느끼며 그들이 이러한 폐허에서 일어났을 때의 저력을 보는 것 같았다.

기념관을 관람한 후 먹은 나가사키 짬뽕은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그리고 평화공원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각국의 기념상을 접하며 세계 평화의 염원을 그것의 기념관에 적어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연수가 끝난 후 2박 3일 동안 우리의 배낭 여행은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버스를 타고 열차로 갈아타고 또 걸어서 이어진 몇 시간의 고행을 통해 찾아 간 '하우스텐보스'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쳐서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점심값으로 들어갈 돈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주먹밥을 싸 가지고 가서 주변의 일본인들의 눈을 피해 먹었던 주먹밥의 맛(?)은 너무나 맛있기만 했다.

여행중에 만난 일본인들에게서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화장실 문앞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쇼핑할 때 나를 밀치고 지나가지 않고 내가 지나갈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사람, 조그마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등 친절한 그들의 국민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물론 2주간 생활하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네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나의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되었다.

끝으로 2주간 연수동안 함께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준 연수팀원들과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병원협회에 감사드리고 성마리아병원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